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2/9℃ 목포 0/8℃ 여수 2/10℃

단기 4342년 (음력 11월 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55호 1판 2009년 12월 22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연탄·쌀·김치·땔감…사랑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현금 기부 대신 물품 기증 늘어 불황에도 이웃사랑은 더 따뜻

불황의 그늘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감싸안는 가슴은 더 따뜻해졌다.

경기침체로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은 예년에 비해 줄었지만, 연탄이나 김치·쌀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겨우살이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이웃을 돕는 온정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1일까지 모금액은 5억1천만원으로 2008년 같은 기간에 모금액(6억3천만원)에 비해 1억2천만원이 줄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날 현재 8억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부금액(8억5천500만원)에 비해 5천여만원 적게 모금되는 등 경제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부액이 다소 줄고 있다.

하지만 현금 기부 대신 물건이나 음식·생활필수품 등으로 기증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불우이웃을 돕는 애정의 손길은 예년 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남구청은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지역내 기업과 주민 등으로부터 불우이웃을 도와 달라며 연탄·쌀·이불 등 8천여만원의 물품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 받은 7천여만원의 물품지원에 비하면 10%이상 늘었다. 게다가 과거엔 연탄 지원이 줄을 이었던 반면 올해는 난방기름도 처음으로 지원됐다. 기름을 때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서 텃밭마트를 운영하는 이성식씨도 지난해에 이어 불우이웃을 위해 22일 남구에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쌀 500포대(20㎏)와 귤 1천 상자(10㎏)를 전달하기로 했다.

목포세관은 최근 목포시 죽교동에서 전 직원이 모금한 돈으로 '사랑의 연탄' 1천장을 구입해 독거노인 등 5가구에 전달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매월 조금씩 모아 소년소녀가장에게 후원하는 후원금 외에는 물품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연탄 배달과 김치를 직접 만들어 전달하기 시작했다. 경제난에 버거워하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많은 온정을 나눠주기 위함이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천여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하기로 했다. 과거엔 현금과 쌀을 같이 기부했지만 쌀소비가 줄고 농민들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저소득층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화순군도 올해 숲 가꾸기 지역에서 수집한 산물을 이용해 만든 땔감 1만다발(1t트럭 100대 분)을 최근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계지원대상자 등 100세대에 전달하는 등 광주·전남 각지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물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금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장은 "김치를 직접 담궈먹지 못하고 연탄을 나르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는 현금보다 물품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보니 기업 및 단체,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기부 규모는 줄었지만 직접 봉사를 하는 온정의 손길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한전 드디어 땅 계약

다음주 전력거래소·사학연금공단도…나주 혁신도시 탄력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다음주 본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이전 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전 등 3개 기관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가 빨라져 나주 혁신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나주혁신도시 건설지원단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사학연금공단은 오는 28일~29일 사이에, 전력거래소는 30일께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전은 23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부지매입 건을 통과시킨 뒤 28일 또는 29일께 한전 본사에서 도시공사와 부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이 계약할 부지는 나주혁신도시 내 14만9천372㎡면적으로, 부지대금만 676억여 원에 이른다. 한전은 이미 부지대금 169억 원과 청사설계 50억 원, 건축 등 52억 원을 포함해 모두 271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전력거래소도 한전의 추진상황에 따라 28~29일 사이 부지매입 결재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부지매입 계약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거래소는 나주혁신도시 내 4만4천149㎡(199억8천만 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금액으로 49억9천여 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사학연금공단도 이번 주 부지매입에 대한 최종 논의를 LH공사와 마무리하고 한전과 마찬가지로 28~29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학연금공단은 1만919㎡의 부지 대금 49억4천100여만 원을 일시불로 완납할 예정이다.

3개 기관의 이 같은 일정대로 부지매입을 체결하게 되면 나주혁신도시 부지매입 계약체결 기관은 지난 7월 31일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 4개로 늘어나게 된다.

aT는 전국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처음으로 지난 7월31일 나주혁신도시 1만8천757㎡의 부지(84억8천900여 만원)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1차 중도금 납입도 마쳤다.

혁신도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3개 기관의 부지매입계약 일정이 완료된 상태"라며 "3개 기관의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후속 부지매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이날 "오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쌍수 한국전력사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에서 부지매입 신청서가 승인될 것"이라며 "이사회 승인이 나는 대로 다음주 초께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 고건 씨

고 건〈사진〉 전 국무총리가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는 이날 "고 전 총리는 오랜 기간 경륜을 쌓았고 통합적 이미지, 중도실용의 철학, 도덕성 등 역량과 인품을 두루 갖춰 일찍부터 적임자로 거론돼왔다"며 "사회통합위는 오는 23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6명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 32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출신지역과 성별, 연령 등의 균형을 고려해 인선됐으며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과 소설가 이문열, 황석영씨, 이에리사 용인대 교수 등 문화, 예술, 체육계 인사들도 선임됐다.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는 강신석 목사와 강지원 변호사, 노진영 전 초당대 총장, 김수지 서울사이버대학총장,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임동욱 기자 tuim@

폐휴대폰 모아 이웃사랑

21일 광주시 남구청 회의실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폐 휴대전화를 직원들이 분리하고 있다. 남구는 연말까지 6천대에 이르는 폐 휴대전화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거둔 1천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향일암 화재예방 예산 1억

일부만 집행됐다

"여수박람회 이전 복원"

전남도가 여수 향일암 화재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향일암 측은 이 가운데 일부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면〉

전남도는 21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수 향일암 화재방지대책 사업의 하나로 올 초 화재감지기 등 소방전기설비와 100t규모의 저수조 설치 예산으로 1억 원을 세워 여수시에 내려보냈으며 이 가운데 7천만 원이 지난 6월 향일암 측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이번 예산의 사업기간은 이달 말로 끝나지만 향일암 측은 현재 저수조 공사만 진행하고 있고 열 감지기와 화재경보시스템 등 소방전기설비 공사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문동식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예산이 지원됐으나 향일암 측의 내부 사정 때문에 모두 집행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지원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향일암이 전국적인 일출명소인 점을 고려해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 이전까지 복원을 완료하기로 하고 설계도면 등 고증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복원에는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향일암은 일대가 모두 전남도 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돼 있으며 내년에도 소방설비 예산으로 1억1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야 29~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29~31일 사흘간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29~31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또 두 수석부대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연내 예산안 처리에 노력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9~31일 본회의에서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 등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 및 안건들이 우선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상정돼 있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22일 법안소위,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29~31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